



기획시리즈



최명섭
임업연구원

야광나무

과명 : 장미과
 학명 : Prunus baccata
 영명 : Siberian Crab-apple
 한명 : 西伯利棠梨



▲야광나무 전경



야광나무 꽃 ▶

옛 선조들은 야광나무의 꽃을 눈같이 흰 살결에 꽃같은 얼굴의 아름다운 여인과 닮았다하여 「雪膚花容의 美人」으로 불렀다.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5월의 혼풍 속에 양지 바른 야산 기슭에 피어나는 야광나무의 흰 꽃은 그 청초한 아름다움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또한 꽃이 피기 전에 1주일 가량 진분홍색으로 점차 엷어져 배꽃을 닮은 5개의 꽃잎이 활짝 펴질 무렵엔 눈부신 흰색으로 변한다. 꽃잎 가장자리마다 엷은 분홍색깔이 은은히 감도는 흰 꽃은 그 새하얀 빛이 멀리까지 반사될 뿐만 아니라 발광(發光)작용을 하는 듯 밤에도 꽃을 감상할 수 있어 야광(夜光)나무란 이름을 얻고 있다.

9~10월에 황색에서 적색으로 익어 가는 직경 1cm내외의 열매

역시 진주처럼 아름답다. 등산을 하다 이 열매를 따 먹으면 허기와 갈증을 면할 수 있다.

학명의 *Malus*는 희랍어 *malon* (사과)에서 유래되었다.

1. 생태적 특성

중부 이북의 표고 100~1,700m 사이의 산지에 자생하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 12m, 직경 50cm에 달하며 지리적으로는 중국 동북부, 사할린, 우수리강, 일본의 북해도에 분포한다. 추위에 강하나 그늘에서는 약하며 습기가 많고 부식질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계곡에서 오리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등과 함께 자라며 비교적 넓고 둥근 수형을 갖는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고 길이 3~8cm의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고 털이 없다. 꽃은 양성화로 지름 3.0~3.5cm이며 5월에 우산 형태의 꽃차례로 홍백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둥글며 지름 8~10mm로 9~10월에 황색에서 붉은 색으로 익는다. 유사종으로 잎자루와 잎 뒷면에 털이 있는 것을 털야광나무 (*var. mandshurica*), 잎 뒷면에 털이 없는 것을 민야광나무 (*for. jackii*), 가지가 많은 관목으로서 잎이 넓은 타원형, 도란형 또는 둥글며 가는 거치가 있고 잎은 길이 2~5cm이며 과경은 털이 없고 길이 2.0~2.7cm로 열매는 지름 7~8mm



▲야광나무 수피



▲야광나무 열매

인 것을 개야광나무 (*for. minor*) 라고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자연상태의 수형은 잔가지가 많고 둥근형이어서 풍만감을 주고 5월에 피는 연분홍색의 꽃은 그 새하얀 빛이 멀리까지 반사될 뿐만 아니라 발광(發光) 작용을 하는 듯 밤에도 꽃을 감상할 수 있다.

9~10월에 황색에서 적색으로 익어 가는 직경 1cm내외의 열매 역시 진주처럼 아름답다. 늦은 가을 잎이 지고 난 뒤 앙상한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빨간 열매는 마치 가을에 피는 가을 꽃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이 나무를 서울의 종로나 을지로 등 도심의 가로수로 심는다면 도시경관은 한껏 돋보일 것이다. 공원이나 정원에 한두 그루 식재하면 5월에는 연분홍색의 꽃을 감상할 수 있고 가을의 열매는 야생조류들이 늦가을 먹이로 즐겨 먹기 때문에 새를 집 안까지 불러들일

수 있다.

4. 번식법

열매를 채취하여 1주일 정도 물에 담근 뒤 과육을 물로 씻어 낸다. 종자는 건조를 막기 위해 정선한 뒤 물기를 제거하고 물기 있는 모래를 섞어 저장을 한다.

발아율은 20% 내외이며 과종 하루전 24시간 정도 물에 담가둔다. 과종량은 m^2 당 2g 정도로 흩어 뿌린다. 4월 상순쯤에 발아되기 시작하여 대부분 싹이 나온다. 초기생장이 빠르므로 적절한 습음질이 필요하며 병충해에 걸리기 쉬우므로 병충해 방제를 충분히 한다.

튼튼한 나무로 키우기 위해 2~3번 정도 이식을 하여 잔뿌리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는 기구재로 쓰며 열매는 산사나무와 같이 성인병에 쓰며 소화불량이나 건위제 산후복통, 활혈 등 한약재로 사용한다.